

테오도르 폰타네 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의식 - 「에피 브리스트 Effi Briest」(1895)를 중심으로 -

김 영 주*

目 次

- I. 서언
- II. 19세기 독일 빌헬름시대의 여성억압적 상황
- III. 에피의 억압적 상황 및 자아의식화 Selbstbewußtwerdung
 - 1. 자아의식의 결여
 - 2. 자아의식의 싹틔움과 완성
- IV. 결론

I. 서언

독일 사실주의 작가 테오도르 폰타네 Theodor Fontane(1819-1898)의 문학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해되어 왔다. 폰타네의 문학이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관조와 체념에 안주하였다는 과거의 해석은 이제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그의 문학이 19세기의 독일 빌헬름시대의 격동기의 사회상황¹⁾에 대하여 새로운 전통을

* 人文大 獨語獨文學科教授

1) Vgl. Fritz Martini : Deutsche Literatur im bürgerlichen Realismus 1848-1898, Stuttgart 1981, S. 23.

개혁한 도전적, 민주주의적 사회비판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고 일컬어 진다.²⁾ 그래서 폰타네는 “사회상황에 대한 깨어 있는 관찰자 ein wacher Beobachter gesellschaftlicher Verhältnisse”³⁾로서 당대사회의 모순과 문제성을 갈파하고 프로이센사회를 비판하고 있으며 그의 체념은 “사회비판의 형태 als Form einer Gesellschaftskritik”⁴⁾로서 이해되어 지고 있다.

폰타네는 자신의 17편의 소설의 1/3에서 여성인물들의 삶을 다룬 여성소설을 썼다.⁵⁾ 이들 여성소설의 주인공들의 의식구조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에 관해 폰타네 연구자인 로이터 Hans-Heinrich Reuter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폰타네의 여성소설은 다양하다. 과거 후작의 첩이었다가 아르노 St. Arnaud 와 결혼한 세실 Cécile 처럼 스스로 결정능력이 없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살할 때는 제외- 삶을 산 여성에서부터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극복하고 지배한 소시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띤다. 이 두 양극사이에는 여성이 예로 제시되어 여성의 고통, 행동, 느낌, 생각을 비유로 시적인, 비유적인 백과사전이 펼쳐진다.”

“Gewaltig die Spannweite im Frauenroman Fontanes. Der Bogen reicht von der ehemaligen fürstlichen Mätresse, bei der jeder Gedanke an eine Selbstbestimmung-es sei denn die des Freitods-ausgeschlossen ist, bis zu der kleinbürgerlichen Filia hospitalis, die sich-im Einklang mit objektiven Gesetzmäßigkeiten-zum Herrn ihres Schicksals aufwirft. Zwischen diesen äußersten Polen entfaltet sich am Beispiel der Frau, im Gleichnis weiblichen Leidens und Tuns, Empfindens und Denkens eine poetisch-parabolische Enzyklopädie.”⁶⁾

2) Vgl. Walter Müller-Seidel : Gesellschaft und Menschlichkeit, in : Theodor Fontane, hrsg. v. Wolfgang Preisendanz, Darmstadt 1973.

Vgl. Karl Richter : Resignation. Eine Studie zum Werk Theodor Fontanes, Stuttgart 1966.

Vgl. Klaus Lazarowicz : Moral- und Gesellschaftskritik in Theodor Fontanes erzählerischem Werk, München 1962.

3) Pauk Böckmann : Der Zeitroman Fontanes, in : DU 11 (1959), H. 5, S. 66.

4) Karl Richter : a. a. O., S. 129.

5) 출처참조 : 김영주. 테오도르 폰타네연구. 삼영사 1988, S. 16.

6) Hans-Heinrich Reuter : Theodor Fontane, Bd. 2, München 1975, S. 677.

로이터의 말대로 폰타네의 소설에는 여주인공의 다양한 삶의 얘기가 마치 백과사전처럼 펼쳐져 있다. 사실주의작가 폰타네는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여성상을 제시한 것이며 폰타네의 여성소설에는 귀족계층에서 소시민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계층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 로이터가 지적하듯 이들 여성들 가운데에는 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스스로의 결정능력이 결여된 여성에서부터, 애초부터 확고한 자아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성인물들에 이르기까지 양극을 이루고 있다.⁷⁾ 그런데 폰타네는 자신의 여성소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지루한 연애 이야기 보다는 “사회상황, 그 속에 숨어있는 관습들, 이것들이 지닌 위험한 정치적,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을 끈다”⁸⁾ 라고 말하고 있다. 리젠호프 Carin Liesenhoff 가 폰타네의 이 말에서 “사회적 의식의 표현 Ausdruck eines nahezu soziologischen Bewußtseins”⁹⁾을 갈파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 폰타네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히 여성인물들의 이런 저런 연애 이야기나 삶의 과정, 결혼, 이혼등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파울 뵉크만 Paul Böckmann 이 지적하듯 폰타네문학의 주제는 사회상황속에 던져져 있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반응하는 양상이며,¹⁰⁾ 우리의 테마와 관련지어 말한다면 여주인공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좌절하며 자아발견의 길을 추구해 가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평생동안 여성애호의 사상을 지니고, “여성에 열광하고 여성의 약점과 오류, 그 이브적 모든 매력을 지옥다운 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두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¹¹⁾ 라고 고백한 폰타네이므로, 그가 19세기 독일사회에서 당대 여성이 당면한 상황과 의식구조에 대해 그 나름으로의 입장과 제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다.

7) 이를테면 세실, 에피 Effi, 빅토아르 Victoire같은 귀족계층의 여성들은 처음에는 자아의식이 결여되었다가 소설종결부분에서 자아의식을 갖추기도하고, 귀족여성이었지만 시민과 결혼한 멜라니 Melanie, 시민계층의 Jenny, 코리나 Corinna, 소시민계층의 마틸데 Mathilde, 레네 Lene, 뉘르부인 Frau Dörr, 슈티네 Stine, 피텔코브 미망인 Witwe Pittelkow 등은 처음부터 강한 자아의식으로써 자신의 삶을 지배할 줄 안 여성들이다.

8) Zitiert nach Richard Brinkmann: Theodor Fontane. Über die Verbindlichkeit des Unverbindlichen, Tübingen 1977, S. 12.: “Aber der Gesellschaftszustand, das Sittenbildliche, das versteckt und gefährlich Politische, das diese Dinge haben, das ist es, was mich so sehr daran interessiert.”

9) Carin Liesenhof: Fontane und das literarische Leben seiner Zeit. Eine literatursoziologische Studie, Bonn 1976, S. 110.

10) Vgl. Paul Böckmann: a. a. O., S. 72.

폰타네문학을 논할 때에 국내에서의 종래의 연구는 대개 폰타네 소설의 주제가 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든가, 구질서와 신질서의 점진적 변화등을 다루어 왔었다. 여성의 문제를 다룰 경우에도 개인과 사회의 갈등의 틀안에서만 그 해결점을 찾았다. 그래서 여성의 삶의 문제를 일반적인 인간의 문제로서만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폰타네 문학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서 그의 대표작 『에피 브리스트』를 택한 이유는 이 소설이 폰타네의 성공작이고, 특히 여주인공 “에피는 폰타네의 여성인물들중 가장 성공적 인물 이라는 Effi ist die vollendeste von Fontanes Frauengestalten”¹²⁾ 이유 때문이며, 또 에피의 의식구조가 소설의 진행에서 확연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폰타네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소재로 이 소설을 썼는데,¹³⁾ 소설의 여주인공 에피는 호엔-크레멘 Hohen-Cremmen 영지의 귀족가문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17세의 어린 소녀로서 어머니의 권유로 38세의 출세주의자인 귀족남작 인스테텐 Innstetten과 결혼한다. 에피는 결혼생활도중 남편친구와 혼외관계를 갖고 그 당시 사회관습대로 이혼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짧은 세월을 보낸 후 죽는다. 본 논문은 『에피 브리스트』에서 에피가 여러 단계의 삶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에피의 여성으로서 역할, 권리, 위치가 어떻게 억압적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에피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소설에서 에피가 어떠한 계기에 어떠한 양상으로 자아인식화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폰타네의 의도 및 폰타네가 여성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11) Theodor Fontane: Brief an Paul und Paula Schlenther vom 5. Dez. 1984, in: Briefe an seine Freunde, hrsg. v. Friedrich Fontane und Hermann, Fricke, Bd. 2. Berlin 1925, S. 329. : “Wenn es einen Menschen gibt, der für Frauen schwärmt und sie beinahe doppelt liebt, wenn er ihren Schwächen und Verirrungen, dem ganzen Zauber des Evatums, bis zum infernal Angeflogensein hin begegnet, so bin ich es.”

12) E. m. Volkov : Zur Problematik von Theodor Fontanes “Effi Brist”, Fontane Blätter, Bd 3, H 1, 1973, S. 5.

13) Vgl. Walter Schafarschik (Hrsg.) : Theodor Fontane, Effi Briest. Stuttgart 1986. S. 69-108.

II. 19세기 독일 빌헬름시대의 여성억압적 상황

그러면 먼저 폰타네의 창작배경인 19세기 독일 빌헬름시대의 여성의 억압적 상황을 살펴 보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난다. 성의 차이가 자아실현의 능력이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능력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서 고정화된 편견아래 고통받아 왔다. 19세기 후반 독일 빌헬름사회의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당대를 풍미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 Schopenhauer의 소논문집 「Parerga und Paralipomena」(1851)의 “여성론 über die Weiber”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논문에서 쇼펜하우어는 여자란 근본적으로 단지 후손을 생산하는 일에 필요하고 “천성적으로 복종할 운명을 갖고 있으며 schon von ihrer Natur nach zum Gehorchen bestimmt”¹⁴⁾ 여자들은 각 부문에서 남성보다 훨씬 열등하여 남성은 결혼을 하지 말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들을 종속존재로서의 그들의 올바른 본성적인 관점으로 되돌아 가도록 daß auch das Weib auf ihren richtigen und natürlichen Standpunkt als subordiniertes Wesen zurückgeführt wird”¹⁵⁾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쇼펜하우어가 널리 알려진 여성혐오가 인것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극단적 여성비하의 글이 논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또 당대 여성의 생활에 관해 하르트만 Eduard von Hartmann 이 쓴 논문 「가정의 생활문제 Die Lebensfrage der Familie」(1885) 역시 당시의 독일여성이 처한 억압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인즉, 여성은 남성에 의해 양육되어지며 그 보상으로서 여성은 후손을 생산하고 집안살림을 맡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여성에게 더 할 일이 있다면 정원손질, 의복만들기, 소규모상업등이 허락될 뿐이며 교육의 기회는 제거되어야 하고 사적인 공적인 면에서 여성의 이기주의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등이다.¹⁶⁾ 당시의 유럽여성에 관해 영국의 밀

14) Zitiert nach : Hans-Heinrich Reuter : a. a. O., S. 65

15) Ebenda.

16) Vgl. Eduard von Hartmann : Die Lebensfrage der Familie, in : Die Gesellschaft 1, 1885, S. 361-368. Zitiert nach Dieter Bänsch : Naturalismus und Frauenbewegung, in : Helmut Scheuer (Hrsg.), Naturalismus. Bürgerliche Dichtung und soziales Engagement, Stuttgart 1974, S. 145.

John Stuart Mill 이 그의 『여성의 예속성 The Subjection of Woman』(1869)에서 표현하였듯이 “사실상 여성은 문자 그대로 아직 남편의 노예였다. In Wahrheit ist aber die Frau tatsächlich noch heute die Leibeigene ihres Mannes.”¹⁷⁾ 당시 여성들은 3K, 즉 부엌 Küche, 육아 Kinder, 교회 Kirche 에서만 자신의 활동범위를 인정받았다. 여성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경제적, 사회적, 성적 권리를 갖지 못하고, 가부장사회에서 오로지 남성에게 의해 지배당하는 의존적인 삶속에서 자족하는 길만이 외형적인 행복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여성에게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가 적은 탓으로 여성 스스로의 자아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¹⁸⁾ 이미 언급하였듯이 페미니스트임을 자인한 폰타네가 당대의 여성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 불이익, 예속적 상황을 그의 사회비판에서 도외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여주인공 에피의 인생을 점철시키고 있는 여러상황을 분석하여 에피의 자아의식의 유무를 살피고 작가의 제언이 무엇인가 작품을 통해 알아보자.

Ⅲ. 에피의 억압적 상황 및 자아의식화 Selbstbewußtwerdung

1. 자아의식의 결여

소설은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피가 등장하는 것은 1장에서부터이다. 자연성과 자유, 변화, 모험을 좋아하는 “자연의 아이 Naturkind”¹⁹⁾이며 “대기의 딸 Tochter der Luft”(8)인 에피는 21세 연상의 귀족남작 인스테텐 Innstetten 과 처음 만나 본 바로 그날 약혼한다. 인스테텐은 “출세주의자 Karrieremacher”(35)이며 “사회적으로 각인되고 규범화된 존재의 구체화된 타입 Die Verkörperung eines gesellschaftlich geprägten und genormten

17) Zitiert nach Walter Müller-Seidel : Theodor Fontane, Soziale Romankunst in Deutschland, Stuttgart 1980, S. 153.

18) Vgl. Dirk Mende : Frauenleben, in: Hugo Aust (Hrsg.), Fontane aus heutiger Sicht, München 1980, S. 185-186.

u. Vgl. Walter Müller-Seidel : a. a. O. , S. 154-158.

19) Theodor Fontane : Effi Briest, Nymphenburger Taschenbuch-Ausgabe in 15 Bänden, München 1969, Bd. 12, S. 5-301 중 S. 38. (이후에 나오는 작품인용은 이 책에 의거한 것이고, 원문 끝의 숫자는 이책의 페이지를 가리킴)

20) Karl Richter : a. a. O., S. 43.

Seins”²⁰⁾ 의 남성으로 에피에겐 어울리지 않는 남성이다. 그러나 에피의 어머니인 브리스트 부인은 당대 귀족사회가 지닌 결혼관을 에피에게 넉넉히 강요하여 인스테인과의 결혼을 종용한다.

“그분은 물론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그점은 잘 따져 보면 장점이 될거야. 게다가 그분은 고매한 성격, 훌륭한 지위, 좋은 예의범절을 갖춘 남성이야. 난 영리한 에피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네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네 나이 스무살에 남들이 사십세가 되어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것이고 그래서 네 엄마를 앞지르게 될거야.”

“Er ist freilich älter als du, was alles in allem ein Glück ist, dazu ein Mann von Charakter, von Stellung und guten Sitten, und wenn du nicht nein sagst, was ich von meiner klugen Effi kaum denken kann, so stehst du mit zwanzig Jahren da, wo andere mit vierzig stehen. Du wirst deine Mama weitüberholen.” (18)

폰타네의 동시대인이며 여성해방운동가인 베벨은 August Bebel 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남성에게, 혹은 사랑하지 않은 여성에게 오로지 금전이나 이득, 지위나 기타 이익 때문에 인생을 증개해주는것 An einen ungeliebten Mann oder an eine ungeliebte Frau für das Leben verkuppeln, nur des Geldes, des Gewinns, des Ranges oder eines sonstigen Vorteils wegen”²¹⁾ 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의 범죄 ein Verbrechen”²²⁾ 라고 명명 하며 이런 일은 바로 여성을 비하시키고 억압하는 일이라고 평하였다. 인간의 가치가 본인의 개성이나 본인의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오로지 상품화되어 상품의 가치척도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에피와 인스테인의 약혼은 에피개인의 인간적 가치를 비하시킨 상황이고 에피가 구매자인 인스테인에게 상품의 가치로서 충분조건이 된 관계로 약혼이 성립된 것이다. 로이터의 표현처럼 “에피는 근본적으로 매각되고 매입된 것이다. Effi wird im Grunde verkauft und gekauft.”²³⁾ 이제 당사자인 에피의 의식구조를 보자. 에피는 아직 부모나 친구들에게 향한 사랑과 배우자에게 향한 사랑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Ich liebe alle, die’s gut mit mir meinen und gütig gegen mich sind” (34) 고

21) August Bebel : Die Frau und der Sozialismus, Berlin 1964, S. 143.

22) Ebd.

23) Hans-Heinrich Reuter : Theodor Fontane, a. a. 0., S. 680.

말한다. 결혼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에피는 인스테인과 감정적 유대가 전연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력이 없이 어머니의 사회관습적 결혼관에 따라 결혼결정을 한다. 그래서 에피에게 거의 아버지뻘이 될만큼 나이가 많은 인스테인이 에피에게 적당한 신랑감이나고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

“누구나 다 적당한 남자이지. 물론 귀족출신이어야 하고 지위도 있어야 하고 외모도 좋아야겠지.”

“Jeder ist der Richtige. Natürlich muß er von Adel sein und eine Stellung haben und gut aussehen.”(20)

라고 대답한다. 즉 에피에게 중요한 것은 신랑감의 “귀족신분”이나 “지위”와 “외모”이며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누구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17세의 철부지 소녀 에피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한 말은 오직 어머니의 사회관습적 결혼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에피 자신의 진정한 주관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에피는 귀족사회가 요구하는 남편감의 조건을 아무 비판없이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혼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전연 없다. 작가는 에피의 약혼시점에서 에피가 천진난만하게 마도로스 옷을 입는다든가, 친구들과의 놀이에만 열중한다든가하여 약혼에는 전연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에피를 “세상물정에 어두운면, 순진함, 비자립성, 버릇없음 Weltunkenntnis, Naivität, Unselbständigkeit aber auch Verzogenheit”²⁴⁾의 본성을 지닌 순진무구한 소녀로 계속 등장시킴으로써 에피의 그러한 결혼관이 실상은 에피 자신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에피가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결정을 할만큼 정신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고 사리 분별력과 자아의식이 결여된 상태임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면 에피의 결혼생활은 어떠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에피의 의식구조는 어떠한 양상인가 알아보자.

에피는 정든 친정 호엔 크레멘영지를 떠나 신랑 인스테인이 관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케쎌 Kessin 으로 이사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소설구조에서 6장에서 23장까지의 작품의 중심되는 부분이 에피의 결혼생활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에피가 결혼 후에 맡게될 아내로서의 역할에 관해 매우 재미있는 비유를 독자에게

24) Mary E. Gilbert : Fontanes “Effi Briest”, DU, Jg. 1, Heft 4 (1959), S. 63.

미리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에피의 결혼식 전야제 Polterabend 에서였다. 결혼식 전날 저녁에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하해주기 위해 신부집에서 열린 결혼전야제의 한 행사로서 연극공연이 있었다. 여기에서 상연된 연극이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의 『케트헨 폰 하일브론 Kätchen von Heilbronn』(1808)이다. 연극의 여주인공 케트헨은 자신의 애정교백을 들은 채 하지도 않고 자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슈트랄 Strahl 백작을 막무가내로 뒤쫓아 다니며 그 백작의 노예나 여종처럼 행동하고 복종한다. 그러면서 오직 백작의 사랑을 갈구하고, 케트헨의 헌신적인 사랑은 보람을 얻는다. 이러한 케트헨의 절대적인 복종은 독자들에게 현실의 신부 에피의 입장과 비교되어진다. 작가는 소설구조에서 이 연극 장면을 바로 에피의 결혼전야제에 삽입하여 신부 에피가 결혼생활에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겪게될 운명, 즉 아내로서 남편 인스테텐에게 예속된 입장, 종속된 역할을 독자의 시각에 비추어 주고 있다. 특히 연극의 여주인공 케트헨으로 분장한 홀다 Hulda 가 연극대사에서 백작을 부를 때에, 늘 “높으신 어른 Hoher Herr”(26) 이란 호칭을 계속 사용하여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은 그 효과를 더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작가는 에피의 아버지 브리스트씨의 표현을 빌어 에피와 인스테텐이 결혼 후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분담이 어떠한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미리 시사해주고 있다. 브리스트씨는 그 특유의 유모와 이로니로써 앞으로 딸 에피와 사위 게르트 인스테텐의 부부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게르트란... 키 큰 뺨이 올라간 줄기를 의미하고 에피란... 그 주위를 휘감고 있는 덩쿨이란 뜻이야.”

“Geert... habe die Bedeutung von einem schlank aufgeschossenen Stamm, und Effi sei... der Efeu, der sich darum zu ranken habe.”(19)

즉 게르트란 이름의 사뭇감이 키 큰 나무를 의미한다면 자신의 딸 에피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덩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인식의 나무인 무화과를 둘러싸고 있는 낙원의 뱀, 다시말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무화과 열매를 따먹게한 에로틱한 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에피는 결혼생활에서 유순하고 유연하며 성적매력을 지닌 유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아내의 임무에 규정지어져 있다.

이제 우리는 이와같은 브리스트씨의 묘사를 기억하고 실제 결혼생활에서 에피와 인스테텐

부부의 상호 남편과 아내의 역할관계가 어떠한가 아래의 대화에서 고찰해보자.

“당신은 뭔가 유혹적인 면을 갖고 있소.”

“아아, 제 유일한 게르트,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좋군요. 이제야 제 마음이 편하답니다. 아시죠, 전 항상 그러기를 원했거든요. 우리들은 유혹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건 당신 스스로 한 생각이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니마이어 목사님에게서 배운거죠.”

“Du hast was Verführerisches.”

“Ach, mein einziger Geert, das ist ja herrlich, was du da sagst, nun wird mir erst wohl ums Herz... Weißt du denn, daß ich mir das immer gewünscht habe. Wir müssen verführerisch sein, sonst sind wir gar nichts...”

“Hast du das aus dir?”

“Ich könnte es wohl auch aus mir haben. Aber ich hab es von Niemeyer.”(125)

위의 인용문은 에피가 남편 인스테텐과 나누는 하찮은 듯한 일상적인 대화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듯한 이 대화 장면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에피가 아내로서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그 진면목을 보여준다. 에피는 아내로서 남편 인스테텐의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에피는 자신을 남편의 장식품 및 소유물로서 생각하고 있다. 에피는 자신의 아버지나 니마이어 목사에 의해, 다시말하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게 의해 대변되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없이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에피에게 아직 자아의식이 결여되어있다. 에피는 남편의 면전에서 스스로 자기자신을 격하시키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를테면 에피는 “유혹적이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자기비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피는 늘 유혹적일 수 있기 위해 노력한다. 에피의 방에는 큰 벽거울이 걸려 있고 에피가 늘 이 벽 거울을 쳐다보는 모습이 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 거울은 에피가 외모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위해 필요한 듯하다. 에피는 오로지 남편 인스테텐에게 예쁜 소유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에피의 외모의 아름다움은 에피의 아내로서의 존재가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에피는 남편 인스테텐의 예쁜 장식품으로서의 에로틱한 매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역할로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국한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에피가 자신이 유혹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가...”라는 표현대신에 “우리들은...” 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을 하나의 개체, 인격체로 생각하지않고 스

스로 개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집단화, 장르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존재이유에서 개개의 인격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집단개념으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부정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가 개성을 지닌 인격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장르화시킨 여성비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혹평한 쇼펜하우어의 글과 다를 바 없다.

“여자들이란 오로지 종족의 번식을 위해 존재하고 여자들의 행동규정도 그런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체로 개체로서 보다는 장르로서의 삶을 산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성으로서의 일보다는 장르로서의 일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Weil im Grunde die Weiber ganz allein zur Propagation des Geschlechts da sind und ihre Bestimmung hierin aufgeht; so leben sie durchweg mehr in der Gattung, als in den Individuen: nehmen es in ihrem Herzen ernstlicher mit den Angelegenheiten der Gattung, als mit den Individuellen.”²⁵⁾

소설의 다른 부분에서도 에피는 “무조건 그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 überhaupt zu Willen sein”(76)이 자신의 역할이어서 인스테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에피는 “사람은 주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적응해야만 한다. Man muß doch immer dahin passen, wohin man nun mal gestellt ist.”(73)고 말하며 무조건 인스테인에게 순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피의 결혼생활은 “남편의 시종 Dienerin eines Mannes”²⁶⁾으로서의 억압적인 삶이다. 작가는 에피의 어머니의 성찰을 빌어 여성이 결혼하면 겪게 되는 상황을 “억압상황의 여성 Die Frau in einer Zwangslage”(43)이라고 표현한다. 아버지 브리스트씨도 결혼후 아내가 지니게 되는 종속적 위치를 “바로 그것이 결혼이라고 일컫는 거야 Eben das ist, was man sich verheiraten nennt.”(43)라고 말한다.

결혼생활중 에피가 아내로서 인스테인의 진정한 친구 및 동반자가 아니며 한갓 예측적 역할을 지닌 사실은 중국 유령에 관한 부부대화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에피는 케썬의 집에 존재한다고 믿고있는 유령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되고 인스테인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갈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인스테인은 아내의 감정이나 인간적 욕구, 공포감과 불안감들에 대한 고려를 전연 하지 않는다. 인스테인은 유령때문에 집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관구장 신

25) Arthur Schopenhauer: Parerga und Paralipomena, Sämtliche Werke, VI, 655. Zitiert nach Walter Müller-Seidel: Theodor Fontane. Soziale Romankunst in Deutschland, Stuttgart 1980, S. 166.

26) Ulrike Haß: Theodor Fontane. Bürgerlicher Realismus am Beispiel seiner Berliner Gesellschaftsromane, Bonn 1979, S. 88.

분에 누가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그러한 우스꽝스러움을 결코 만회할 수 없으며 Von solcher Lächerlichkeit kann man sich nie wieder erholen.”(81) 결국 “바르진으로의 거절 Einer Absage nach Varzin hin “(81) 을 의미하여 자신의 출세길이 막힌다고 생각하여 에피의 소원을 거절한다. 여기에서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스테인에게 에피의 존재는 아내로서의 한 인격체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스테인은 에피가 아무 이의없이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를 것만을 강요할 뿐이며 에피는 남편에게 오로지 하나의 종속물의 역할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에피의 태도를 살펴보자. 에피는 남편의 입장을 종전처럼 그대로 따르는가? 아니면 에피의 남편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에피는 인스테인에게 “그렇지만 당신쪽에서 좀더 이해심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aber ich finde, daß du deinerseits teilnahmsvoller sein könntest”(82) 라든가 “그 말씀은 제게 별 위안이 되지 않아요. Das ist ein geringer Trost.”(82) 라고 항의한다. 에피는 인스테인의 냉정한 입장에 대해 결혼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박하고 있다. 소설을 면밀히 읽는 독자의 눈에 띄는 것은 이때까지 복종과 종속적인 태도로 “그 어른은 그걸 알면 안돼 Der herr darf nicht wissen, daß.”(76) 라든가, 남편 인스테인에게 직접 “저는 여기서 제 높이신 어른을 기다리겠어요 ich bleibe und warte auf meinen ‘Hohen Herrn’ “(80) 라고 애교로써 남편을 늘 “어른”으로 호칭하여, 독자들에게는 결혼 전야파티의 연극대사 가운데 케트헨이 슈트랄백작을 부르던 호칭을 연상시켜 주던 에피가 어렵스나마 남편의 독단을 느끼게 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피의 의식구조를 관찰해 온 독자의 일순간의 기대는 역시 좌절을 겪을 뿐이다. 독자적인 사고훈련을 받은적도 없고 귀족사회의 관습에 적응된 에피는 남편에 대한 그녀의 실망을 독립적인 사고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곧 자신의 감정보다 인스테인의 입장을 더 우위에 두는 동시에 결국 아무 비판없이 남편을 따른다. 에피는 인스테인앞에 자신을 유치한 어린이라고 스스로를 격하시키며 남편의 뜻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거기에 순종한다. 이는 에피의 항의에 이어진 아래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게르트, 당신은 정말 선량하고 관대하세요. 당신에겐 제가 유치하게, 아니면 철없는 어린이 같아 보였을 거예요. 첫째 제가 무서움을 느낀다는 일, 그다음엔 당신에게 짐을 팔자고 제안한 일이 그러했어요.”

“Wie gut du bist, Gert, und wie nachsichtig. Denn ich muß dir ja kindisch oder doch wenigstens sehr kindlich vorgekommen sein : erst das mit meiner Angst und

dann hinterher, daß ich dir einen Hausverkauf ansinne.”(84)

작가는 에피가 유명문제때문에 아내로서 남편과의 첫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완전히 참패한 바로 이 시점에서 미혼의 여가수 트리펠리 Trippelli 를 등장시키고 있다. 작가는 남편에게 예속된 삶을 사는 에피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주관과 자아의식을 지닌 여성인물을 에피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트리펠리는 계몽된 시민계층의 프로테스탄트 목사 가정 출신인데 파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비아르도 Viardot 에게서 여러해 성악수업을 쌓은 성악가이다. 트리펠리는 사회관습이나 계급차이에 별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계급출신자들 앞에서도 전연 동요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트리펠리는 에피에게 “당신은 인스테텐 남작부인이고 저는 트리펠리에요. Du bist die Baronin Innstetten. Ich bin die Trippelli.”(92) 라고 각자의 개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트리펠리는 사회적 제약이나 관습을 회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러한 사회속에서 그녀의 존재방식은 “늘 위협을 받으며 ständig gefährdet”(98)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리펠리는 자신의 예술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개성에 따른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다. 그녀의 행동은 자기확신에 차있고 자유분방한 예술가로서 파리, 페터스부르크 등의 예술도시로 여행하여 “늘 자유롭게 떠나며 immer freiweg”(93) 스스로의 주관대로 삶을 사는 해방된 여성이다. 이러한 트리펠리에게 완전히 매혹당해 있는 에피에게 인스테텐은 “특이한 것 혹은 특이하다고 일컫는 것을 조심하시오. Hüte dich vor dem Aparten oder was man so das Aparte nennt”(89) 라고 충고한 후,

“그런 것은 대체로 행복으로써 지불한다.”

“Das bezahlt man in der Regel mit seinem Glück”(89)

고 말하며 트리펠리를 경계하도록 한다. 인스테텐의 눈으로 본다면 트리펠리의 삶의 방식은 위험하며 그러한 여성은 어쩌면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작가는 자아의식과 자기주관하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장하며 살아가는 트리펠리를 에피와 대비시켜 두 여성중 어느 여성이 더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써 지불하고 있는지를 독자로 하여금 숙고하게 만들고 있다.

에피에게 확고한 주관성과 자아의식이 결여된 모습이 가장 위험하게 나타난 것은 에피와 크람파스 Crampas 와의 간통사건이다. 크람파스는 인스테텐의 과거 군대시절 친구로서 인스테텐 집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었는데 “여자에 정통한 남자 ein Damenmann”(107)이며 “도박사

적인 성향 eine Spielernatur”(150) 를 지닌 그는 에피에게 충성스런 친절을 보여 순진한 에피를 유혹한다. 마침내 두 사람의 교제는 금지된 만남으로 발전하여 결국 에피는 “마치 사로잡힌 포로인양 wie eine Gefangene”(172) 크람파스의 은밀한 유혹을 막아 내지 못하고 “금지된 것, 비밀스러운 것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Das Verbotene, das Geheimnisvolle hatte seine Macht über sie.”(172)

소설구조상 에피와 크람파스의 간통사건은 트리펠리와 에피의 삶을 비교한 바로 직후 독자에게 제시되고 있어 독자는 에피에게 동정을 느끼게 된다. 즉 트리펠리가 성취한 자유로운 자아실현이나 자기개발과는 동떨어진 존재방식을 갖고, 억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에피의 간통에는 결혼생활의 지루함과 답답함에서부터 탈출하고자하는 인간적 욕구가 표출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성의 행복이 귀족사회의 전통적, 관습적 상황, 다시말해서 우리가 고찰해본 것처럼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추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에피가 스스로 후에 크람파스를 가리켜 “제가 한번도 사랑한 적이 없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남자 Den armen Kerl, den ich nicht einmal liebte und den ich vergessen hatte, weil ich ihn nicht liebte”(280) 라고 표현하듯이 에피는 크람파스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진 적도 없이 마음속으로는 주저하면서도 마치 “사로잡힌 포로” 처럼 금지된 장난에 휩쓸려 소외를 덜기 위해, 필러 자이델 Müller-Seidel 의 표현처럼 “사랑놀이 Liebelei”²⁷⁾ 에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것이다. 즉 에피에게는 스스로의 의지로써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정신적인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에피의 삶이 늘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에피는 당시 관습상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채 그 댓가로 치러야하는 간통사건을 미리 판단할 수 없었고 또 예방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에피의 간통은 독자로 하여금 에피가 아직 성숙한 정신적인 자립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아직 인생에 대한 책임감과 확고한 자아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 후에 에피가 크람파스에게 “당신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 행동은 안되요. 제 죄는 매우 무거워요. Ihr Tun mag entschuldbar sein, nicht das meine. Meine Schuld ist sehr schwer”(193) 라고 고백하였듯이, 에피는 커다란 죄의식 속에서 헤메이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주관성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에피의 미성숙한 의식구조는 에피가 크람파스와의 불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에피 스스로의 결단에서가 아니라 남편이 베를린으

27) Walter Müller-Seidel : Fontanes “Effi Briest”. Zur Tradition des Eheromans, in : Wissenschaft als Dialog, hrsg. v. Renate von Heydebrand und Klaus Günther Just, Stuttgart 1969, S. 52.

로 전근되는 계기에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에피는 인스테텐의 전근 발령 얘기를 듣고서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른 시기가 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당신의 뜻에 따라 살겠다.

“Nun bricht eine andere Zeit an, und ich fürchte mich nicht mehr und will auch besser sein als früher und dir mehr zu Willen leben”(207)

그러나 에피의 탈선은 크람파스와 인스테텐의 결투, 크람파스의 죽음, 에피의 이혼으로 이어진다. 여성해방운동가인 랑에 Helene Lange는 잡지 “여성 Die Frau”(1922)에서 결투 자체가 여성에 대한 모독이며 결투란 자아의식을 갖춘 모든 여성에게 이해될 수 없는 억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묘한, 모든 자아의식을 갖춘 여성에게 매우 생소한 표현: ‘마치 그에게서 누가 고양이를 훔친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남자에게서 그의 부인이나 딸을 유혹한다면? 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성의 척도아래 여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억압이다.

“Diese merkwürdige und für jede selbstbewußte Frau so befremdende Art zu formulieren: wenn, einem Mann seine Frau oder Tochter verführt wird? Als ob man sagte, ‘wenn einem seine Katze gestohlen wird. Diese unbewußte Herabdrückung der Frau unter das Maßpersönlicher Verantwortlichkeit’”²⁸⁾

결투는 당시 사회관습으로서 아내의 부정을 발견한 남편은 의당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결투를 신청하였다.²⁹⁾ 인스테텐은 실제로 아내 에피를 “증오한다거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ohne jedes Gefühl von Haß oder gar von Durst nach Rache”(239) 사회관습이 시키는대로, “사회적 그 무엇 Gesellschaftsetwas”(240)의 법칙이 요구하는대로 자신의 실추된 명예 때문에 결투한다. 이는 랑애가 지적하듯이 여성을 마치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인 개나 고양이의 입장과 똑같이 취급하는 행위이다. 에피는 오직 인

28) Ulike Haß: a. a. O., S. 83.

29) Vgl. Ebd.: S. 82-83.

스테텐의 소유물이었으며 그 소유물이 침해당했다는 것은 그 소유주에게는 커다란 명예손상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이혼에 있어서도 인스테텐은 아내에게 단 한번의 상의도 없고 아내의 부정한 과거를 연애 편지에서 발견한 이후 에피를 단 한번 만나는 일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고할 뿐이다. 인스테텐은 자기 부부문제를 의당 아내와 우선 토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대신 동료 빌러스도르프와 먼저 대화를 나누며 자기가 꼭 결투해야하는 이유를 밝힌다(240). 또 딸 아니 Annie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소설 어느 대목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상의한 대화가 없다.

이에 대한 에피의 태도를 알아보자. 이러한 상황을 에피는 아무런 항의 없이 받아들인다. 이혼을 통고 받고도 단 한번도 반문해 본 적이 없고, 딸을 빼앗기고도 양육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혼녀 에피는 사회에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결혼전 어떠한 직업교육을 받지않아서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삶의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에피는 이혼후의 비참한 궁핍속에서 사회가 이혼녀에게 주는 수모를 감수하며 자신의 운명에 적응하고자 노력할 뿐이다.

“나는 인간이 자리잡은 그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나의 생에서 아무것도 바꾸고자 하지않아. 지금의 상황 그대로 그냥 됐어. 나는 다르게 바꾸고자 하지 않았어.”

“Ich weiß wohl, man liegt, wie man sich bettet, und ich will nichts ändern in meinem Leben. Wie es ist, so ist es recht : ich habe es nicht anders gewollt.”(275)

2. 자아의식의 싹틈과 완성

그러나 이혼 후 가난과 고통의 세월 뒤에 에피는 인스테텐과 사회관습의 모순을 깨닫는다. 그전까지 인스테텐의 행동에 순응하여 자신의 이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던 에피에게 인스테텐의 처사를 비판하고 인스테텐의 행동에 거리를 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주관성이 싹트게 된 것이다. 이는 에피가 노력끝에 딸 아니를 만난 뒤 인스테텐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저는 그 사람이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전 늘 제 자신이 작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마음이 좁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더욱 더 큰 혐오를 주는 건 당신네들의 그 미덕이란 것입니다.”

“Ich habe geglaubt, daß er ein edles Herz habe, und habe mich immer klein neben ihm gefühlt : aber jetzt weiß ich, daß er es ist, er ist klein. Und weil er klein ist, ist er grausam, alles was klein ist, ist grausam...Was mich noch mehr ekelt, das ist eure Tugend.”(280)

인스테텐의 슬하에서 자라난 딸 아나는 생모 에피에게 어린아이로서의 자연스런 감정을 전연 보이지 않고 철저한 생소함을 느끼게 한다. 인스테텐의 슬하에서 아나는 “인스테텐의 어김없는 재판 Getreue Replikat Innstettens”³⁰⁾으로 자라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테마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 에피의 태도의 변화이다. 에피는 과거에 자신에게 “높으신 어른”으로 군림하였고 자신이 맹목적으로 복종하였던 인스테텐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 자신에게서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빼앗고 순진한 어린아이의 자발스런 인간성의 개발을 억제시키고 기계적인 인간으로만 성장하게 만든 인스테텐의 좁은 한계를 갈파한 것이다. 이혼 후 극도의 형극의 세월을 겪는 동안에 에피의 자아의식이 싹트고 독립적인 판단력을 갖추어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에피의 자아의식의 싹틔움과 더불어 독자들은 에피의 상황에서 이혼의 경우 자녀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권리에 대해 가장 공정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게 되고 여성의 권리와 관련지어 당대의 여성억압적인 사회관습을 개혁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 후 소설구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에피는 완성된 자아의식에 다달은 모습을 보인다. 에피는 죽음 전에 아버지의 배려로 친정 호엔 크레멘에서 임종 때까지 짧은 세월을 보낸다. 임종 전에 에피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한다.

“그이가 꼭 이것만은 아셨으면 해요. 저의 제일 아름다운 시절에 속하는 제 병상생활동안 전 그이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가 이런 확신을 갖고 죽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그를 위로해 줄 것이고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며, 어쩌면 화해의 마음을 갖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이는 천성으로 선량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며 사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최대의 고상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Und es liegt mir daran, daß er erfährt, wie mir hier in meinen Krankheitstagen,

30) Diethelm Brüggemann : Fontanes Allegorien, in : Neue Rundschau 82 (1971), S. 291.

die doch fast meine schönsten gewesen sind, wie mir hier klar geworden, daß er in allem recht gehandelt. Laß ihn das wissen, daß ich in dieser Überzeugung gestorben bin. Es wird ihn trösten, aufrichten, vielleicht versöhnen. Denn er hatte viel Gutes in seiner Natur und war so edel, wie jemand sein kann, der 'ohne rechte Liebe' ist."(299)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피가 숭고한 인간성을 지닌 여성으로서 과거의 남편 인스테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리히터가 지적하듯 “모든 소설 인물들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우위의 입장 “menschlich weit über alle anderen Figuren des Romans”³¹⁾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에피는 딸 아나를 상봉했을 때에 인스테인을 향해 터뜨린 분노를 자제하고 인간적인 따스함으로써 남편의 약점과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만 Elsbeth Hamann 이 지적하듯, 인스테인을 이해, 용서한다는 말이 결코 사회관습에 굴복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또 죽음직전에 피안의 세계가 풍기는 변용으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피안의 변용도 또 사회적으로 요구된 견해에 대한 완전한 굴복도 그 문제성을 포괄적인 범위에서 특징짓지 않는다. “

“Weder eine jenseitige Verklärung noch eine gänzliche Unterwerfung unter gesellschaftlich geforderte Anschauungen kennzeichnen die Problematik in ihrem vollen Umfang.”³²⁾

인스테인 스스로 나중에 자신의 삶이 “실패작 verpfuscht”(292)이며 문화와 사회적 명예를 “잡동사니 Krimskram”(293)라고 고백하였듯이 인스테인의 삶마저도 불행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에피는 자신의 고통의 세월을 미루어 생각해서 인스테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형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에피가 인스테인에게는 결여되어있는 “진정한 사랑”을 지닌 여성으로서 상대방을 통찰하고 정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을 객관화시킬 줄 알며 상대방을 용서할 줄도 아는 인간성을 지닌 여성이란 의미이다. 리히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31) Karl Richter : a. a. 0, S. 82.

32) Elsbeth Hamann : Theodor Fontane, Effi Briest, München 1981, S. 51.

“그것은 모든 아픔과 고통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또 신체적인 쇠약에 우연히 잠깐 맹목으로 마주해있는 것이 아닌, 모든 이기적인 점을 초월한 인간성의 가치를 의미한다.”

“Es geht um den Wert einer Menschlichkeit, die nach allen Kränkungen und allem Leid sich schuldig zu sprechen und dem anderen zu verzeihen vermag, die alles Selbstische so weit zurückgelassen hat, daß sie nicht zufällig dem körperlichen Verfall vorübergehend nahezu blind gegenüber steht.”³³⁾

다시말하면 그것은 에피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스텐을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뜻이며 결코 인스텐과의 삶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친정에서 보낸 병상생활”이라면 인스텐과의 결혼생활의 총결산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에피 자신이 죽은 후 묘비에 인스텐이란 성을 쓰지 말라는 부탁에서도 확인된다. (300)

이와 같은 에피의 의식구조의 변화는 소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던 그네모티브에도 반영되어 있다. “마치 어린 소녀시절처럼 wie in ihren jüngsten Mädchentagen”(286) 에피는 다시 한번 그네에 오른다.

“에피, 너는 여전히 항상 옛날의 너와 같구나.”

“아니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히 옛날 일이죠. 그리고 저는 단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Effi, du bist doch noch immer wie du früher warst.”

“Nein. Ich wollte, es wäre so. Aber es liegt ganz zurück, und ich habe es nur noch einmal versuchen wollen”(287)

위의 대화는 소설 마지막에 임종하기전 어느 한가한 때에 에피가 그네를 타면서 니마이아 목사와의 나누는 대화이다. 여기에서 에피는 “완전히 옛날일이죠”라는 말을 한다. 에피는 스스로 옛 소녀시절과는 다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피가 그네타는 모습은

33) Karl Richter : a. a. 0., S. 110.

“마치 행복과 기쁨에서처럼 wie in Glück und Übermut”(286) 이어서 실체가 아닌 “마치 ... 처럼”의 상황을 보여주며 “그 사이에 터득한 통찰 eine dazwischengeschaltete Einsicht”³⁴⁾을 보여준다. 소설 처음 부분에서 나는 그네타기를 더 좋아하는데, 어디에선가 끊어지고 부러져서 아래로 떨어질듯한 무서움에서 타는게 제일 좋아요 ich schaukle mich lieber, und am liebsten immer in der Furcht, daß es irgendwo reißen oder brechen und ich niederstürzen könnte”(34)라는 대목에서 나타났던 철없는 경솔함이라던가 우쭐대는 분위기가 더이상 아니다. 에피는 자신의 지금의 위치와 입장을 잘 파악하고 “옛날의 자기자신”과의 차이와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는 성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성숙된 에피의 변화는 에피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에피는 닥아오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체념하지 않는다. 에피는 현세에서의 삶이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판단아래 구원으로서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맞이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에피는 니마이어목사에게 “제가 천국으로 갈까요? Ob ich in den Himmel komme?”(287)라고 묻고, 목사는 “그래. 너는. 그럴꺼야. Ja, Du wirst.”(287)라고 대답한다. 즉 죽음은 에피에게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에피는 죽음이란 지상적인 욕망에서 떠나 “화려한 생의 축제에서 좀 더 빨리 부름을 받는 것 von der Tafel etwas früher abgerufen wird”(299)라고 생각하여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에피는 죽음에서는 그녀가 삶에서 찾을수 없었던 해방감과 평화가 있어서 에피의 죽음의 순간에는 “해방의 느낌이 그녀를 엄습했다. Ein Gefühl der Befreiung überkam sie.”(300) 그러므로 죽음은 에피에게 “삶의 때 이른 중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있는 종결 nicht vorzeitiger Abbruch ihres Lebens, sondern dessen sinnvoller Abschluß”³⁵⁾인 것이다.

IV.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에피 브리스트』에서 여주인공 에피는 약혼, 결혼, 간통, 이혼으로 이어지는 삶의 도정에서 철없는 소녀에서부터 소설 마지막에 죽음 가까이에서 정신적으로

34) Karl Richter : a. a. 0., S. 83.

35) Mary Gilbert : a. a. 0., S. 74.

독립된 자아의식을 갖춘 성숙한 여성으로 변화하였다. 작가는 대화, 모티브 등 여러각도에서 독자에게 에피의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소설에서 만약 주인공 에피가 마지막에 이러한 정신적 성숙과 자아의식에 도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체념속에서 병사하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저 에피의 비극적 운명을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폰타네가 에피의 모습을 그렇게 가련하게 둔 채 소설을 끝마치기에는 에피를, 아니 작가가 스스로 고백하듯, 모든 이브를 너무나 사랑한 듯하다. 작가는 소설의 종결 부분에서 단연코 에피에게 송고한 인간성, 정신적 독립, 확고한 자아의식을 갖춘 모습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므로써 에피의 위상을 한결 높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 즉 폰타네의 이러한 의도가 소설 『에피 브리스트』에 국한된 그의 우연한 발상일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에피 브리스트』의 전단계 소설이라고 일컬어지는³⁶⁾ 『세실 Cécile』(1887)에서도 여주인공 세실은 수동적이고 연약한 여성에서부터 소설 종결부분에서 자아의식을 갖춘 정신적으로 성숙한 여성으로 변화하였다.³⁷⁾ 또 『사하 폰 부테노브 Schach von Wuthenow』(1882)의 여주인공 빅토아르 폰 카라온 Victoire von Carayon 도 에피나 세실과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그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작가의 깊은 의도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소설의 종결부분에서 에피의 자아의식의 완성이란 커다란 테제를 삽입한 작가 폰타네를 우리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당시의 유럽사실주의 작가들보다 더 우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당대의 불란서작가 플로벨 Flaubert 의 『보바리부인 Madame Bovary』의 여주인공인 보바리부인이나, 러시아작가 톨스토이 Tolstoi 의 『안나 카레니나 Ana Karenina』의 여주인공 안나 카레니나는 그녀들의 삶의 비극적 운명속에서 사회관습의 벽을 뛰어 넘지못하고 절망속에서 불행한 종말을 겪는 것으로 끝맺음 할 뿐 여주인공들의 인간으로서의 격상이나 정신적인 성숙 및 자아의식화는 엿볼수 없기 때문이다.

폰타네가 그의 많은 소설에서 추구한 것은 인간성이 존립할 수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 휴머니티는 그의 소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³⁸⁾ 당대를 지배하던 여성비하적 사회관습이 그러한 폰타네의 시각에 극히 비인간적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여성의 인간으로서 품위와 인간다운

36) Vgl. Gerhard Friedrich: Die Schuldfrage in Fontanes Cécile. Jahrbuch der deutschen Schillergesellschaft, 14. Jg. 1970, S. 520.

37) 참고참조: Young Zu Kim: Zur Frauenfrage bei Theodor Fontane, die Diskriminierung der Frau in seinem Werk Cécile. KGG Dokumentationen Bd. 1, Seoul 1993.

38) Vgl. Karl Richter: Resignation, a. a. O., S. 128.

Vgl. Nobert Frei: a. a. O., S. 135.

삶을 위해 여성의 상황에 개혁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휴머니티를 지닌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회로의 개선을 위해서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자아의식의 확립은 필요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이 그의 제안이 아닐까? 폰타네는 19세기 독일사회에서 독서를 통하는 길 외에 달리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³⁹⁾ 일반여성 독자들에게 당대 여성의 억압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여성 당사자 스스로의 자각과 의식변화가 선행하여야함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폰타네는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그의 문학에서 밝히지 않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효과를 일으켜서 그가 의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독자가 스스로 마지막까지 숙고할 수 있게 eine gegenteilige Wirkung hervorruft und dem Leser die Möglichkeit gibt, selbst zu Ende zu denken, was er bewußt ausließ”⁴⁰⁾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물의 성격과 운명을 표현한 작가로서 독일 소설문학이 괴테 이래로 알고 있는 작가중 가장 우수한 작가 der bedeutendste Darsteller und Gestalter weiblicher Charaktere und Schicksale, den die deutsche Erzählkunst sei Goethe kennt.”⁴¹⁾ 인 폰타네는 당대 여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19세기 독일사회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든 여성에게 주는 좋은 지침일 것이다.

39) Vgl. Walter Müller-Seidel : Theodor Fontane. Soziale Romankunst in Deutschland, a. a. O., S. 157-158.

40) E. M. Volkov : Zur Problematik von Theodor Fontanes Roman 'Effi Briest', Fontane Blätter, 3, Heft 1 (1973), S. 6-7.

41) Zitiert nach : Nobert Frei : Theodor Fontane. Die Frau als Paradigma des Humanen. Literatur in der Geschichte, Bd. 3 Hain 1980, S. 80

참고문헌

I) 1차문헌

Fontane, Theodor : Nymphenburger Taschenbuch-Ausgabe, Bd. 12, München 1978.

II) 2차문헌

Aust, Hugo (Hrsg.) : Fontane aus heutiger Sicht, München 1980.

Bänsch, Dieter : Naturalismus und Frauenbewegung, in : Helmut Scheue (Hrsg.),
Naturalismus, Bürgerliche Dichtung und Soziales Engagement. Stuttgart
1974.

Bebel, August : Die Frau und der Sozialismus. 25. Aufl. , 1946, Frankfurt a/M,
1977.

Böckman, Paul : Der Zeitroman Fontanes, in : Der Deutschunterricht. 11, H/5
(1950) . S. 59-81.

Brüggemann, Diethelm : Fontanes Allegorien, in : Neue Rundschau 82 (1971) , S.
290-310, S. 486-505.

Degering, Thomas : Das Verhältnis von Individuum und Gesellschaft in Fontanes
"Effi Briest" und Flauberts "Madame Bovary", Bonn 1978 (=Abhandlungen
zur Kritik, Musik und Literaturwissenschaft 274)

Ellinger, Edeltraut : Das Bild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bei Theodor Fontane,
Diss. Würzburg 1970.

Frei, Nibert : Theodor Fontane. Die Frau als Paradigma des Humanen. Literatur in
der Geschichte, Bd. 3, Hain 1980.

Gilbert, Mary-Enole : Fontanes "Effi Briest " , in : Der Deutschunterricht 11, H. 4,
(1959) , S. 63-75.

Haß, Ulike : Theodor Fontane. Bürgerlicher Realismus am Beispiel seiner Ber-
liner Gesellschaftsromane, Bonn 1979.

Lazarowicz, Klaus : Moral- und Gesellschaftskritik in Theodor Fontanes erzäh-
lerischem Werk, in : Untersuchung und Bewahrung. hrsg. v. K. Lazarowicz
und W. Kron, München 1962, S. 218-231.

Liesenhoff, Carin : Fontane und das literarische Leben seiner Zeit. Eine lite-
ratursoziologische Studie, Bonn 1976.

Martini, Fritz : Deutsche Literatur im bürgerlichen Realismus 1848-1898, Stuttgart

1981.

Müller-Seidel, Walter : Theodor Fontane. Soziale Romankunst in Deutschland, Stuttgart 1973.

Preisendanz, Wolfgang (Hrsg.) : Theodor Fontane, Wege der Forschung, Darmstadt 1973.

Reuter, Hans-Heinrich : Theodor Fontane, Bd. 2. München 1975.

Richter, Karl : Resignation. Eine Studie zum Werk Theodor Fontanes, Stuttgart 1966.

Schafarschik, Walter (Hrsg.) : Theodor Fontane, Effi Briest, Stuttgart 1986.

Twelmann, Margrit : Die deutsche Frauenbewegung, Bd. 2, Kronberg 1976.

ZUSAMMENFASSUNG

**Das Problem der Selbstbewußtwerdung der Frau im
Werk Theodor Fontanes
– im Bezug auf 『Effi Briest』 (1895) –**

Young Zu Kim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Versuch, Fontanes Hauptwerk 『Effi Briest』 (1895) aus der feministischen Sicht zu analysieren.

I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 in der im wilhelminischen Deutschland die Schopenhauersche Mysogynie stark vorherrschte, litten die Frauen immer noch unter der Diskriminierung. Deshalb war es das Ziel dieser Arbeit zu untersuchen, in wie weit der Dichter Fontane, der als sehr genauer Beobachter gesellschaftlicher Vorgänge und sogar als Gesellschaftskritiker galt, in diesem Roman eine Stellungnahme zu dieser frauenfeindlichen Gesellschaft äußert, und welchen Bewußtseinszustand seine Hauptfigur Effi Briest in ihrer unterdrückten Frauenrolle in der jeweiligen Lebensphase hat. Schließlich galt auch die Frage zu klären, ob sie letztendlich zur Selbstbewußtwerdung kommt.

Am Anfang fehlt Effi jegliches Selbstbewußtsein. Bei der Verlobung spielt ihre Mutter die dominante Rolle. Effi, als 17-jähriges naives Mädchen, übernimmt für ihre Eheschließung, noch ganz in der Tradition der ständischen Gesellschaft, keinerlei Mitverantwortung.

Im Eheleben nimmt Effi ihrem Mann Innstetten gegenüber zunächst eine untergeordnete Rolle ein, wie die einer Dienerin. Sie akzeptiert dieses Rollenverhältnis, was sich in vielen Dialogen nachweisen läßt, verfällt aber dann, weil ihr das Selbstbewußtsein und die Verantwortung für ihr Handeln fehlt, in eine Liebesaffäre mit Crampas. Das Resultat ihrer "Schuld" ist das Duell, der Tod von Crampas und die Scheidung von Innstetten. Bis zu diesem Zeitpunkt hat Effi alles

Jedoch gegen Ende des Romans kommt Effi zum selbständigen Denken und zu als Schicksal hingenommen, keinen selbständigen Gedankengang entwickelt und ihren Zustand einfach nur akzeptiert.

einem Selbstbewußtsein. Nach der Scheidung leidet sie zunächst sehr unter Armut und Krankheit. Aber durch diesen Prozeß des gesellschaftlichen Bruches ist sie zur Erkenntnis und aus diesem Erkenntnisprozeß heraus zum Verständnis gelangt. Vor ihrem Tod versöhnt sie sich mit Innstetten und rechtfertigt sein Verhalten. Das beweist, daß sie zu einer reifen und selbstbewußten Frau geworden.

Aus der Entwicklung seiner Hauptfigur könnte man Fontanes Einstellug zur Diskriminierung der Frau in der damaligen Gesellschaft ableiten und folgende Schlußfolgerung zur weiteren Diskussion stellen: Fontane wollte mit Effi Briest andeuten, daß die Frauen sich selber um ihre Bewußtseinsänderung bemühen sollen, um die frauenfeindliche Gesellschaft menschenwürdig zu erneuern.